



지난 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법인 조인원 이사장과 각 구성원 대표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위해 법인은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인은 구성원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지난 5일 법인 이사회 조인원 이사장과 구성원이 올해 처음으로 마주해 총장 선출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조 이사장은 이날 ‘법인은 이번 구성원 갈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총장 선임 여부는 구성원 간 합의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인-구성원 간담회의 주된 화두는 ‘현 구성원 갈등과 총장 선출제에 대한 법인의 입장’이었다. 조 이사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구성원 대표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조 이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위해 법인은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구성원 합의 사항을 대학본부를 통해 전달 받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달 22일 긴급회의를 통해 ‘총장 선출제는 대평의가 아니라 범대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이와 관련한 법인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사장 면담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수의회 또한 지난 달 20일 “법인이 2019학년도 1학기 중에 총장 선거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인의 적극적인 태도를 종용한 바 있다.

총장 선출제 마련 과정에 왜 대학본부가 나서느냐는 일부 구성원들의 의문도 제기됐다. 조 이사장은 “올해 구성원 단체 대표들이 임기 교체되었고, 해당 대표들의 의견 또한 참고하는 것이 많았다. 그 판단했다”며 “법인은 이러한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 일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대평의) 총장선출규정(선출규정) 논란 해소를 위해선 법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구성원들의 주장에 대한 대답으로, 관련된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희학원 통합 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은 “법인이 민주적인 총장 선출제 마련에 동의했음에도 자꾸만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구성원들끼리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 책임을 가진 법인이 이전과 같이 총장을 선임하도록 빌미를 주는 일이다”라고 주장 했다.

또 “법인과 대학본부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기다리며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안을 제시해 구성원 합의를 종용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적극적인 태도가 구성원 합의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 그리고 이사회 의견 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법인은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고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 세대와 그 미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학본부에 대한 법인의 업무 위임은 대평의 선출규정 제출 이후 교수의회가 줄곧 법인과 대학본부에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 바와 궤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법인이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에 미루어, 총장 선임 여부는 오직 구성원들의 의견 조율에 달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자율 전공학 2016) 회장은 “빠른 시일 내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며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과 아울러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총장 상에 대한 고민 등을 통해 논의를 성숙하게 가꿔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국제캠 마일리지 장학 신설… 최대 200만원까지 수혜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국제】 마일리지 장학이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 대상으로 이달 내 시행될 계획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운영 중인 적립식 장학 제도 ‘모자이크 장학’과 유사한 형태다. 올해 3월 이후 취득한 실적부터 인정되며,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학생 개인 계좌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 장학은 자격증, 어학능력 및 대내·외 활동 내역을 점수로 환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학 중 2번 신청 가능하며,

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적립은 재학 및 휴학 기간에 모두 가능하다. 정규 학기 재학생 중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마일리지 환산기준은 1점당 1원이다. 따라서 10만 점부터 200만 점까지 적립된 점수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립 방법은 증빙서류를 학생 지원센터 장학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학팀에서 해당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통해 마일리지가 축적된다. 다만 우수학술지 논문

제재, 교내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수상 등의 개인 특성 고려사항은 소속 단과대학이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 장학팀은 “적립식인 마일리지 장학은 서울캠 모자이크 장학과 유사하지만 포인트 기준이 더 높고 휴학생도 적립 가능하다”며 “마일리지 장학제도로 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며 동시에 장학금 획득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서울캠 모자이크 장학을 운영해 국제캠 학생은 적립식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캠퍼스별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장

학 제도를 각각 자율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은 “우리학교는 서울캠에 인문사회계열, 국제캠에 이공계열이 밀집돼 있다”며 “서로 특성이 상이해 우정 장학 등의 공통 장학을 제외하고는 캠퍼스별로 장학 제도를 자율 운영한다”고 전했다.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마일리지 장학은 서울캠 모자이크 장학에 대응하는 학생 중심 장학제도”라며 “학우분들께서 취업이나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의욕과 보상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사법’ 8월부터 본격 적용 우리학교 “원칙대로 시행”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열악했던 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학교 교무팀은 “강사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령과 매뉴얼에 맞춰 개편 및 검토 중에 있다”며 “특정한 기준을 세워 강사를 임용하거나 강의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가 마주한 문제를 비춰 봤을 때 강사법이 취지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우리학교는 시간강사를 대체하기 위한 전임, 겸임·초빙 교수의 인원 및 시수 증가를 배제한 상태다. 겸임·초빙 교수는 재임용 절차와 방학 중 임금, 교원 소청권 등을 보장하지 않아도 돼 대학 측이 부담이 덜기 위해 선택하는 방안이다. 교무팀은 “타 대학에서는 강사법 대응을 위해 겸임·초빙 교수로 대체한다고 하던데 우리학교는 정석대로 진행 한다”며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임금 288억 원을 오는 10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정예원 사무관은 “강사 고용변동 및 비중 등을 반영하여 방학 중 임금을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며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대학 입장에서 부담 정도가 달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교육부의 지원금 288억 원이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강사법 대책위원회 정복철(후마니타스칼리지) 위원장은 “전국에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288억 원을 나눠 1년에 1억에서 2억 원의 지원금이 중이다”라고 말했다.



## 지면안내

총학생회 공약 중간점검 ▶ 4면



〈경희대로〉



〈이룸〉

※ 이번 호가 1학기 종간호입니다

## 시선

## 사설

간만 본 간담회  
이제 무슨 평계를 댈 건가

반복된 논의가 새 국면을 맞는 듯했다. 교수의회와 교수의회를 제외한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 구성원들은 모두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 선출규정(선출규정)' 논의 종결을 위해 법인의 개입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같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양측은 같은 것을 요구했다. 법인이 개입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말이다. 마침내 지난 5일 법인 이사회 조인원 이사장과 구성원들이 마주 앉았다. 조인원 이사장의 한마디에 한 학기 내내 지루하게 이어지던 관련 논의의 행방이 기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인원 이사장은 '법인은 이번 구성원 갈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구성원들이 법인으로 책임의 화살을 돌리던 것을 다시 구성원들에게 되돌린 셈이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간담회 동안, 법인은 구성원 이견 조율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다른 수사로 여러 번 반복했다.

법인의 이러한 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다. 총장 선출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당위와 큰 목표를 두고 시작한 논의였다. 이제 와 법인이 합일되지 않은 구성원 일부의 의견에 힘을 싣는다면, 당장의 논란이야 종결되겠지만 당초 논의를 시작한 이유부터 흐리는 것이다.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고려해 구성원 간 갈등에 철저히 선을 그은 법인의 태도는 납득할 수 있는 조치다.

이제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대평의 선출 규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사자인 교수의회와 범대위다. 그러나 이어진 논의에 지친 나머지 간담회 이후 양 쪽에서는 구성원끼리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전망하기에 이르렀다.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법인의 방관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책임의 창끝을 돌렸다. 그러나 법인의 선긋기로 더욱 선명해진 건 결국 구성원 간 합의가 구성원 집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완성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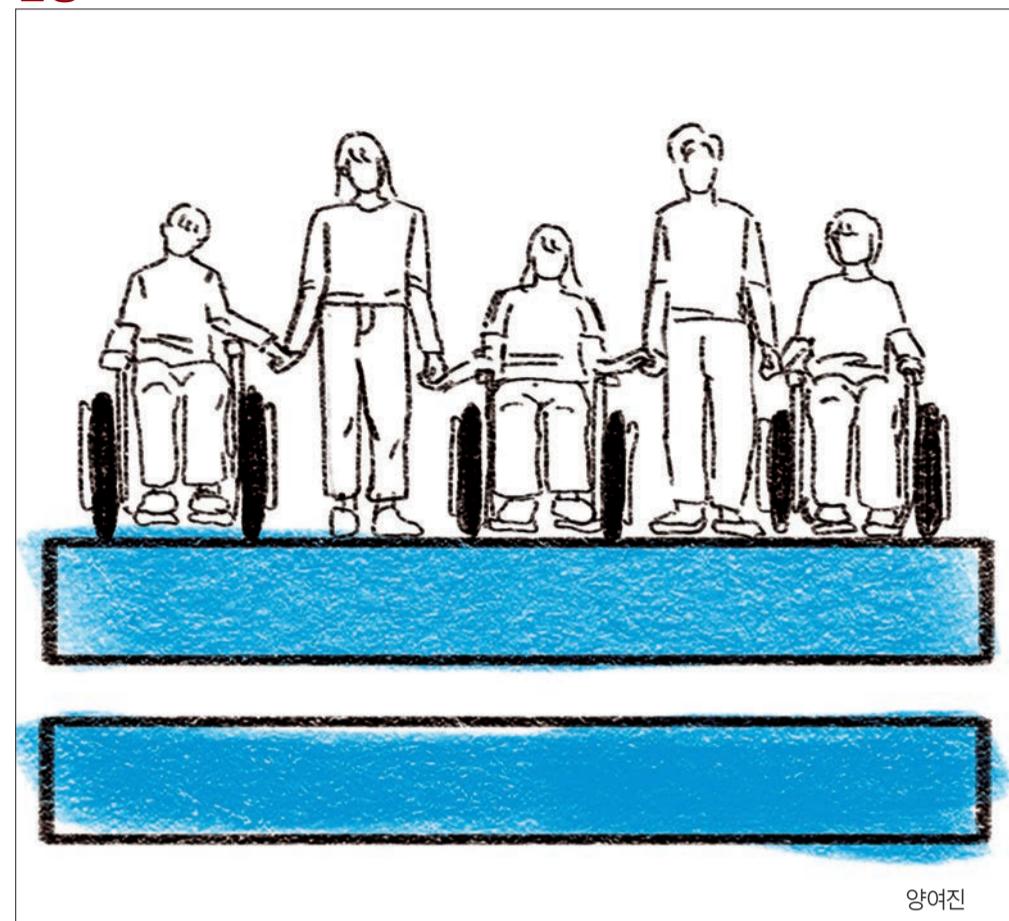
모든 구성원의 타협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교수의회는 범대위가 이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포용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교수의회를 제외한 범대위 구성원들은 교수의회가 범대위를 부정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제안해 그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 이상의 책임 돌리기보다 이제는 자성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거부하는 현 상황부터 끝내야 한다. 공개 토론회라도 개최해 각자 고민한 내용들을 풀어내자. 교수의회와 범대위가 동수로 모이는 등 조건을 동일시하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 이야기할 것을 제안한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는 의견을 도출할 방법에 대해 양 측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를 시작할 때 한 학기를 이어 온 평행선 갈등은 조금씩 그간극이 좁혀질 수 있다.

그 누구의 일도 아니다. 구성원의 열망으로 시작했고 구성원의 의지로 끝내야 할 일이다. 총장 선출제는 결국 구성원의 원만한 합의에서 비로소 논의가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

## 만평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양여진

## 이 주의 주제 - 장애학생 이동권

## 당사자 목소리 생략된 장애인 시설

##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지난 2017년 우리학교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학내에서 장애학생의 학습에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시설이 미비한 공간도 쉽게 발견된다는 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장애인 시설로 마련된 학내 경사로는 정작 장애 학생이 이용하기엔 부적절했다. 또 비장애학생에게 '인도'로 여겨지는 길은 장애학생에겐 '인도'가 될 수 없었다. 학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경사로를 마련했다지만 정작 경사가 너무 가팔라 장애 학생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우리대학은 장애학생의 생활보다 명목상 이유에 더 집중했는지도 모른다.

지난 2월 부산에서는 장애인 모자(母子)가 차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택시에 부딪혀 어머니가 숨지고 아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현장 바로 옆에 인도가 있었지만 인도 환경이 열악해 모자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처럼 장애학생의 재량에 맡겨진 장애학생의

이동권은 학습권뿐만 아니라 생존권으로 이어진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휠체어의 자체 무게와 속도로 인해 사고 발생시 보행자보다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 부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 또 이로 인한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장애학생만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 누구도, 학생을 대변하는 학생 자체 기구조차 장애학생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따르면 우리학교에 약 500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 단과 대학 재학생 수를 육박하는 장애 학생은 누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현재 학내에 장애학생을 위한 자치 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장애인은 쉽게 잊혀지고, 어렵게 존중받는다.

물론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편의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은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비장애학생에게 원하지 않게 동정의 대상이 되기 일쑤지만, 그들과 동등하게 학교의 주체로 여겨져야 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사업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생략된 채 진행된다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모욕적인 처사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장애인 시설은 특정한 대상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당장 내일 당신의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특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모두를 위한 움직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게 접근, 강제 성추행을 시도하려 한 건국대 흥보실 조교가 경찰에 입건됐다.(**흥보실 A조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입건/건대신문, 2019.5.17.**)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수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건국대 흥보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강대 총학생회(총학)가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학생회비 납부 저조, 고뇌하는 학생회/서강학보, 2019.5.25.**) 총학 봄학기 중운위 결산안에 따르면 학생회비 납부율은 약 46.7%로, 64,090,435원이 납부됐다. 국제인문학부 김가윤 비상 대책위원장은 "학생회비를 사용해 수의사업을 진행하되, 학생회비 납부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앙대 서울캠 총학 성평등위원회(성평위)가 2번째 간담회를 열었다.(**중성조 간담회, 뚜렷한 방향 못 잡아/중대신문, 2019.6.4.**) 간담회는 '학생자치 차원에서 성평등한 중앙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장비단 위원장은 "앞

으로도 소수자 및 젠더권력에 의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자 한다"며 항후 계획을 밝혔다.

이화여대 여성학과의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여성학과 전임교원 부족 문제 심각, 절반 퇴임했지만 충원 없어/이대학보, 2019.6.3.**) 이화여대 여성학과는 지난 3년 동안 교수 3명이 퇴임했지만 추가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기에 전임교원 부족 문제가 더욱 지적된다. 여성학과 교수진이 대학원과 학부 연계 전공 강의 외에도 행정, 한국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학센터 등을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연세대에서 '글로벌기초 교육학부(GBED) 문제 해결을 위한 총학생회-GBED 간담회'가 열렸다.(**GBED 등록금 인상분 반환 결정… 남은 숙제는?/연세춘추, 2019.5.27.**) 연세대는 올해 입학한 GBED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전 공지없이 인상한 사태에 대해 등록금 인상분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지난달 20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GBED 학생들은 해결된 등록금 문제 이외에도 학생들 간 교류 부족, 불합리한 학사제도, 외국어 공지 및 안내 미흡 등을 주된 문제로 지적했다.

## 타자의 얼굴을 마주해야

## 세시봉

이서림 (국제뉴스팀장)



※ 영화 <기생충>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국내 개봉 전부터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이목을 끌었고 개봉 8일 만에 약 5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다. 관람객 대부분은 극장을 나오면서 짹짜하고 복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 그간 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인간 군상을 비참하게 그려냈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비참한 스토리가 곧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화는 사회의 비극적인 이면을 직시하고 있다. 비오는 날에 부자집은 미제 텐트 안에서 잠이 들지만 가난한 반지하는 물에 잠자 초토화된다. 누군가에게는 기분을 전환시킬만한 즐거운 일이 다른 이에게는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사건으로 다가온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 순위는 20위 안에 오르고,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음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했다는 비보가 줄을 잇는다.

##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어야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벼랑 끝에 밀릴 동안 세상은 약자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약자는 소리 없이 아우성친다. 세상과 격리된 지하에서 신호를 쏘아 보내지만 외면뿐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른다. 언뜻 지하는 지상과 철저히 구분돼 다른 세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는 겸게 뚫린 지하실 계단으로 이어져 있으며 약자의 죽음은 모두의 책임이다.

힘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지만 차별이나 멸시와는 엄연히 다르다. 아직도 자본이나 사회적 위치를 권력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신분의 제약은 사라졌지만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계급은 되풀이된다. 사실 자본가와 노동자, 대표자와 부하직원, 정치인과 국민은 공생하는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로 여겨지는 자는 종종 약자를 타자로 간주하며 멸시하곤 한다.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인간이지만 환경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험모하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기사님 냄새'로 형상화된다.

영화를 본 뒤 약자를 상징하는 지하실의 남자 얼굴을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열악한 삶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범벅 된 얼굴이 강렬하고 두려웠다.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이 있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약자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약자의 얼굴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인식은 변화의 시작이다.

지하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얼굴을 들여다 본 적이 있는가. 호소하는 아픔에 관심 가진 적이 있는가. 차이가 멸시와 배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가. 타자의 아픔을 두려워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질문을 던질 때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 대학은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꼼짝없이 다음 학기로

김지원 기자 kjkw990327@khu.ac.kr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특위)'와 인문대 학생회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어서문학과 A교수 관련 피해 은폐 및 A교수 비호 시도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A특위, "일부 교수진이 사건 축소 시도한 정황 드러나"/대학신문, 2019.5.26.**) 이들은 일부 교수가 A교수의 인권센터 변론서 작성성을 돋고 피해자 측에 진술서 내용을 수정,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피해 교수를 찾아가 A교수를 용서할 것을 요구하며 밤새 암박을 가한 정황을 과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는 권력형 성폭력과 간접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는 이유로 여학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이우승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적법한 근로계약’ 이렇게 힘드나

## 한국어 강사 투쟁, 왜?

오진영 기자 clara0504@khu.ac.kr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국제교육원(국교원)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국교원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에 반발했다. 강사들은 계약서를 쓰지 못한 채, 강의 외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호소문을 배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어 강사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강사 수당은 수업 시수 별로 주어지지만 학생이 다쳐 입·퇴원 수속을 도우러 가거나, 경찰서에 있는 경우 밤늦게 달려가야 한다”며 “수업 이외의 예산관리, 학생유치 및 관리 등 모든 업무는 무급노동, 무료봉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유노동, 무임금’의 부당한 강제 노동인 행정 업무를 거부하면 수업 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명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당 노동이 이어지자 지난 10월, 한국어 강사들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한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수업 이외 강사에게 부여되는 ‘을으로서의 무’에 대해서 당연시하도록 하는 조항들만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계약기간 또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1개월로 한정지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강사 B씨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설명회는 없었고 계약서를 내밀고 수일 이내에 사인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강사들은 이 계약서를 거부했고, 결국 현재는 무효화된 상태로 명문화된 계약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후 강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전체 강사의 98% 내외인 106명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하여 한국어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적법한 계약서 작성을 대학본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학교는 약 반년 간 이렇다 할 대응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이들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입사한 소수의 강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강사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교원의 강사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부(대학원)가 아닌 학교의 부속기관에서 단기성의 어학코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강사로 대우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어 강사들의 주장이다.

강사 C씨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소득은 있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소득으로 3.3%의 소득세를 부과받는 학원 강사와 달리 현재 한

국어 강사들은 8.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강사 A씨는 “국교원의 특성상 교육원 내부는 사제지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작년 부당한 계약서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암묵적인 무기 계약직으로 생각했다”며 “지금까지는 그나마 고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 감수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부당한 업무가 당연시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고용 또한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고용 불안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국교원 측은 한국어 강사들의 주장을 ‘관례’라고 일축했다. 국교원 흥윤기 원장은 “과중한 업무는 교육의 범위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며, 국교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도왔지만 잡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어 강사들이 주장한 ‘갑질’ 역시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 20시간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암묵적으로 합의되었다는 주장이다.

우리학교 국교원은 국내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큰 규모다. 연간 1,200명의 유학생을 약 100여 명의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강사 A씨는 “더 작은 기관의 한국어 강사들은 이미 저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희대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모범사례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국제교육원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부당한 처우와 불합리한 계약서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대자보 불일 곳 없는 국제캠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장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어 공식적인 대자보 게시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드리났다. 60명 중 48명(80%)이 ‘서울캠퍼스 중앙 게시판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캠 내에는 가시성 좋은 중앙 게시판이 없어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서울캠 종학은 “게시 기간이 지나면 게시자 혹은 총학이 게시물을 수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 과정이나 제재는 없으며 관행상의 명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 대학교에서는 ‘게시자 중심’으로 게시판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심의 과정도 없다. 게시 공간 또한 우리학교와는 비교가 되는 규모다.

서울대 자치도서관 위원장은 “관행상 대자보를 불일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한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 10군데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이 대자보를 보기 힘든 이유에 대해 43%(26명)이 ‘구성원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소변기(응용수학 2014) 씨는 “애초에 대자보가 게시된 모습을 접하기 어려우니 구성원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종이 대자보는 보통 유동 인구가 많은 위치에 부착된다. 사람들이 오고가며 지속적으로 이슈를 접할 수 있다. 대나무숲이나 애브리타임 등 SNS와 같이 한 번스쳐가는 매체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 셈이다.

무엇보다 대자보는 학생들 사이에서 만 여론 형성이 되는 인터넷 매체에 비해 교직원과 교수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우위를 점한다. 이인희(언론정보학) 교수는 “SNS는 정보 교류가 주목적인데 비서용자는 SNS에서 교류되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종이 대자보와 같은 올드 미디어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특히 여러 매체에 골고루 노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대자보’를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내붙이거나 걸어 두는 큰 글씨로 쓴 글’로 풀이한다. 대자보가 대학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체성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대학교라면 대자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주장이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개설 안내(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9.05.13(월)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9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9.05.27(월) 17:00 까지 학번부여: 2019.05.31(금)	학번부여 SMS 내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9.06.12.(수) 10:30 ~ 06.13(목) 17:00	수강신청 홈페이지( <a href="http://sugang.khu.ac.kr">http://sugang.khu.ac.kr</a> )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수업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9.06.17(월) 12:00 (1차) 2019.06.20(목) 09:00 (2차)	본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등록금 납부기간	2019.06.17(월) 09:00 ~ 06.19(수)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신청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9.06.20(목) 09:00 ~ 17:00	서울: 교무처 학사지원팀 방문 국제: 교무처 교직원 방문(2차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9.06.24(월) ~ 2019.07.15(월)	
성적입력일	2019.07.15(월) ~ 07.16(화)	
성적열람일	2019.07.15(월) ~ 07.16(화)	
성적정정일	2019.07.17(수) ~ 07.18(목)	

### 2. 수업안내

#### 가. 수강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2교시	13:00~15:45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 3.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1) 타대학 계절학기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제한범위에 포함됨
2) 국제교류처, 취업진로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활동은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등)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계절수업 수강신청 링크 클릭->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 4. 수강등록

- 가. 등록금: 학점당 89,000원  
나. 등록금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인포기-종합정보시스템-등록/정학->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1) 입학사정: 학년 2019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학번사정: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학년별 행정 계좌번호 확인

- 다.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등록금 납부 이후 수납이 불가능으로 등록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ugang.khu.ac.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수업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등록금 및 수강료는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과 함께 계약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총학생회 공약 중간점검

제51대  
총학생회

#. 지난해 11월, 2019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학생 대표자가 뽑혔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경희대로' 선거운동본부(선본)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후보가 3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35.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이룸' 선본 전완주(일본어학 2015) 정후보와 이지은(산업경영공학 2015) 부후보가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52.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거 기간 '경희대로'는 크게 학원의 자주화를 통한 교육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룸'은 건물 리모델링, 투명한 정보 공개, 교육·복지·환경 개선, 캠퍼스 이원화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9학년도 1학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양 캠퍼스 제51대 총학생회가 당선 이후 약 5개월의 임기 동안 학생의 지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약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 소통에 주력…주요 공약 실현 미진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지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 당시 경희대로 선본은 졸업이수 학점 축소 문제 대응, 공간부족 해소, 아름원과 한의/이과/간호 단과대학동 정식 사용승인 확보,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유도를 통한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의 학생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캠 졸업이수학점 축소 문제는 3학점 보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영대학, 무용대학, 음악대학, 정경대학, 호텔관광대학이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2018학번 학생들의 졸업 이수학점을 기준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상위 규정인 학칙 개정 없이 단과대학 내규만을 고쳐 우선 시행한 점도 논란이 됐다. 당시 제50대 총학은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교는 문제 제기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다섯 개 단과대학 2018학번 학생들에게 3학점을 추가로 들을 수 있도록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회장은 "다전공생의 학점 부족, 수업 시수 축소 우려 등 파생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면서 "많은 학생들의 공분을 샀던 절차 문제만큼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의 정책 시행에 앞서 총학이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내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조별 과제 등의 모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

## 소통간담회,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 밀그림 마련에 성과

## 공간부족 해소, 회칙 개정 등 구체적인 실현은 방학 이후 기약



김수혁(왼쪽) 회장과 김영우 부회장은 교육권 보장을 강조했다.

다는 불만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총학은 선거 당시 단과대학 구분을 넘은 공용 공간 확보로 공간부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단과대학 수요 및 공간부족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는 건물별로 공용공간화 가능한 공간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파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Info21 시스템에 공간 대여 신청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SPACE21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건물은 임시사용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대문구청은 2016년 대법원이 경희대로 부지 일부가 경희학원의 사유지이므로 구청이 부당이득금과 사용료를 지불

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기재한 해당 건물들의 건축인허가서 내용과 상충한다며 사용승인을 반려했다.

김 회장은 "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고 법인에도 면담 요청을 할 계획이다"라면서 "현재로서는 당장 해결을 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당사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여름방학 중이나 2학기 초부터 경희대로 갈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성원 단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총장 선출제 문제에 대해서는 김 회장은 "구성원 사이의 오해도 있고 법인과

본부 간의 논의 절차에 대해 구성원들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며 불명확한 소통을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구성원 의견을 모아달라는 이사장 말대로 진척을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런 논의를 위해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데 교수의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협상에 불응하는 형국이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선거운동 방식이나 법인 규정안의 독소조항 등 다뤄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투표반영비율을 둘러싼 갈등에 모조리 매몰돼 버린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밝혔다.

이밖에도 총학은 회칙 개정의 일환인 재정운영회칙 제정, 학내 차별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치규정 신설이 가시화 단계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그간 총학 업무 가운데 관련 규정이 없거나 사문화 돼 자의적이거나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면서 "회칙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총학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거 당시 인터뷰에서 경희대로 선본은 '사전예방'과 '학생자치 강화'를 주요 가치로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초 총학과 단과대학 학생회가 구성된 후 본부에 요청해 열린 소통간담회를 실천한 사례로 꼽았다. 소통간담회에는 학생 대표들과 총장 직무대행, 부총장, 각 행정 부서장 등이 참석해 학생회의 주요 공약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학교의 사업과 정책 시행 계획을 공유 받았다. 김 회장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곧 중간점검 차원의 간담회를 더 열고 나아가 앞으로도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 복지 공약 원활…건축 관련 공약 불분명

##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혜준 기자 khj\_hyejun@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1대 이룸 총학생회(총학)는 현재 임기의 중반을 달리고 있는 만큼 논의 중인 사항이 많았다. 총학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서명운동을 받고 낙후된 제2기숙사 뒤편 생길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가로등 전구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생 이용 시설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취식실과 휴게실을 복원해 이르면 2학기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 도서관 열람실에 노트북 사용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는 실현이 요원하다. 학교는 가능한 제2열람실의 유선 LAN 좌석과 AV실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투명한 재정 공개를 위해 자치회비 감사단을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다소 수정돼 이행 중이다. 전 회장은 "소수의 구성원끼리 평가하는 것보다 다수의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 감사단을 구성하지 않았다"며 "내부 평가를 통해 2학기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과목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강좌 개설, 수강신청제도 개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결과 '음식과 문화: 글로벌&로컬 트렌드와 이슈' 강좌가 개설됐다. 수강신청에 대해 전 회장은 "수강신청제도의 잣은 변화는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취소신청지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생 복지 공약은 활발히 실천했다. 7개 건물에 유·무인 편의점이 입점하면서 학생

## 총여 존폐 총투표 실시, 유·무인 편의점 설치 성공

## 건물 리모델링 착공 시기, 캠퍼스 이원화 논의 미지수



전완주(왼쪽) 회장과 이지은 부회장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학생 요구사항이 있었던 학생식당(학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학은 교내 학식 개선 협의 TF를 구성해 매달 학식을 이용하는 학생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3월 총투표를 통해 폐지가 결정된 총여학생회(총여) 대신 총학 산하 기구인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를 운영했다. 성평등위는 총여가 진행하던 시험기간 새벽 고양이 버스 운행, 여성용품 지원, 몰래 카메라 탐지 및 예방 등의 사업을 지속했다.

공간과 관련한 공약 이행은 아쉬웠다. 총학은 미래과학관 착공, 캠퍼스 노후 공간 리모델링, 공과대학(공대) 파빌리온 준공 등 공간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소통위원회에서 미래과학관 착공을 논의했지만 당

장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교외 재원 조달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어대학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도 기금이 확보돼야 한다. 단과대학 리모델링 계획은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하계 방학에도 진행되지 못할 예정이다. 전 회장은 "공약했던 리모델링 학생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단과대학에 전임한 상태다"며 "총학의 역할은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단과대학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직 삽을 뜨지 않은 공대 파빌리온 준공 역시 공대 행정실과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며 총학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이원화 문제는 담보 상태다. 전 회장은 "이원화 문제를 대평의

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총장선출제가 위축 중인わり 다른 안건은 자주 다뤄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덧붙여 "그렇지만 캠퍼스 간 전과 기준 차이를 개선하는 것은 올해 안에 꼭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국제캠 학생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생활 협동조합(생협) 유치를 위한 프로세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생협은 서울캠에 본부를 두고 국제캠에 지부를 두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소통 문제가 발생해 난항을 겪었다. 전 회장은 "유치에만 주력하기보다는 생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생청원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 역시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전 회장은 "학생들이 겪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확정된 정보만을 공유하다보니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장구 관리를 위해 내부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자를 증원한 만큼 2학기에는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축제를 꼽았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계획과 다르게 70주년 행사 규모가 간소화된 것이 문제였다. 일주일 전에 협업을 취소한 업체도 있었다. 전 회장은 "2학기에는 미리 준비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학기에는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는 전 회장은 "2학기에는 축제와 e-sport 대회를 진행하는 등 기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내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인 총장 후보추천규정에도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탐사보도

## 보장되지 않는 이동권…장애학생에겐 생존권 문제

문화령 기자 moonbym@knu.ac.kr

#윤용석(디지털콘텐츠학 2015) 씨는 국제캠퍼스(국제캠) 유일의 휠체어 이용 학생이다. 인도 환경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학교 곳곳에는 가파른 경사로, 흙이 파인 인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씨는 항상 일정보다 미리 움직이고, 길을 돌아가는 불편함을 겪었다. 우리신문은 윤 씨를 만나 다섯 해 동안 다녔던 정문에서부터 전공 수업을 듣는 예술디자인학관까지 이르는 등굣길을 되짚어보며 우리학교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학교 합격하자마다 가장 큰 고민은 예술디자인학관에 오르는 언덕이었어요.”

윤 씨는 우리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동 휠체어만 탔었다. 그러나 학교에 합격하고 그 기쁨을 누릴 새 없이 급하게 전동 휠체어를 맞춰야 했다. 국제캠 정문에서 예술디자인학관까지의 언덕을 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윤 씨는 “언덕을 오르는 게 익숙지 못했던 때 이동도 우마와 같이 등교했어요”라고 회상했다. 가파른 언덕 뒷에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경사로 인한 어려움은 다른 공간에서도 이어졌다. 인도 터에 시멘트를 덧발라 경사로를 만들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기에는 경사가 급했다. 윤 씨는 “생명대학관 앞 경사로를 무리하게 지나다 휠체어가 굵히고, 균형을 잃어 몸이 심하게 흔들렸던 적도 있어요”라며 급격한 경사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다행히 윤 씨가 이를 학교 측에 건의하자 학교는 경사로를 완만하게 정비했다. 이처럼 휠체어 장애인 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경사로의 각도다. 학내는 물론 학교 건너편에 위치한 식당가는 이보다 심각한 상태다. 윤 씨는 “학교 외부에 있는 식당은 이동을 돋는 경사로가 없고, 있더라도 경사가 가파른 것이 대부분이라 이용하기 어려워요”라고 말하며 학교 외부 식당을 찾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인도보다 차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보도블럭으로 만들어진 인도를 지날 때 휠체어 바퀴를 타고 진동이 그대로 전해져 몸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 이용자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① 인도 가장자리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모습이다. ② 경사가 급한 경사로에 시멘트를 덧발라 완만하게 정비한 모습이다. ③ 길을 새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깊게 파인 흙을 메워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 ④ 선승관 경사로를 전동 휠체어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인도 대부분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기준에 미달돼 휠체어를 타고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학교는 주로 아스팔트로 길이 설치돼 있지만, 외국어대학관에서 우정원에 이르는 아스팔트 길은 유난히 흙이 많이 퍼여 울퉁불퉁하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길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보면 조그마한 흙에 균형을 잃기 쉽다. 윤 씨는 “길을 새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깊게 파인 흙을 메워주는 것만으로 저에게 큰 도움이 돼요”라고 말했다. 덧붙여 “학교 측에 해당 길을 평평하게 정비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네요”라고 말했다.

만약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을 위해 도로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장애학생 통행로를 우선 보장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학교는 선승관을 지으면서 장애학생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변의 인도를 함께 공사했다. 윤 씨는 “인도가 사라져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아찔했죠”라며 당시의 공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 외에도 차도를 이용해야만 했던 순간은 또

있었다. 2015년 입학 당시 정문에는 장애 학생 전용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씨는 계단으로 돼 있던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했다. 특히 우리학교 특성상 학내에 버스 차고지가 있어 정문부터 버스가 수없이 지나다닌다. 윤 씨는 “등교할 때는 물론이고, 신입생 미나를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할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인도 가장자리에 주차된 불법차량 역시 통행의 방해물이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사람 한명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차량 사이를 지나가기 어렵다보니 자주 돌아가요”라며 윤 씨는 체념한 것처럼 말했다.

건물을 들어가서도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윤 씨는 예술디자인학관에서 주로 전공 수업을 듣지만 통행로는 모두 우회해야만 한다. 예술디자인학관을 이용할 때 경사로가 있는지 하 1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강의실을 찾아간다. 또 난방을 위해 문을 닫아둬야 하는 겨울마다 윤 씨는 난감해진다.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예술디자인학관의 문을 혼자 열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

다. “문이 닫혀있으면 다른 학생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해서 주운 날씨에 15분이나 기다린 적도 있어요” 윤 씨는 겨울마다 의례적으로 겨우 난관을 익숙하다는 듯이 말했다.

엘리베이터 부족도 윤 씨의 불편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제캠퍼스의 필수 교양 수업 대부분은 멀티미디어관에서 진행된다. 윤 씨도 새내기 시절 필수 교양을 수강하기 위해 멀티미디어관을 자주 찾았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다보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이 휠체어를 탄 윤 씨에게도 양보해주시 않아 이미 다른 층에서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보내야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관에서 연속적으로 강의가 있을 때는 더욱 고역이에요” 윤 씨는 매번 아슬아슬하게 강의실에 들어가곤 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단과대학 건물은 일절 이용하지 못한다. 윤 씨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의 스토리텔링 과목을 수강하고 싶었지만 외국어대학관에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없어 포기했어요”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무엇보다 윤 씨는 학교를 다닌 지 벌써

다섯 해가 지났지만 한 번도 축제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 축제가 매번 운동장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휠체어로 운동장 경사로를 내려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동장 안에서도 지면이 울퉁불퉁해 이동이 어렵다. 윤 씨는 “대운동장 경사로는 유독 경사가 급해서 가볼 생각조차 없어요”라고 말했다. 노천극장은 비교적 접근성이 좋지만 이 또한 축제가 진행되면 두 갈래 길 중 평평한 길을 통제해 경사가 급한 길로만 진입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이 노천극장에 어렵게 도착하더라도 진입경사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객석이 계단 쪽에 설치되면 원활한 관람이 어렵다.

윤 씨는 “서울캠퍼스 축제에 배리어프리 존이 설치된 것처럼 앞으로 국제캠에도 장애학생 대상 복지사업이 마련돼 다양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보다 장애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학교의 한 학생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뜻을 해내고 싶은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b>접수기간</b>	등록기간 : 6. 17.(월) ~ 7. 5.(금) 16:00까지 ※ 인원수 미달로 폐지된 강좌는 추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b>Level Test</b>	영어 : 7. 3.(수), 7. 4.(목) 17:30 • 중국어 : 7. 3.(수) 17:30 • 일본어 : 7. 4.(목) 17:30 • 테스트 후 반 배정 : 7. 5.(금) 오후 8시 이후 www.iie.ac.kr에서 확인	<b>Sample Class</b>	영어 : 7. 3.(수) 17:15 ※ 샘플강의는 강좌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b>강의기간</b>	정규 외국어강좌(6주) : 7. 8.(화) ~ 8. 16.(금)																				
<b>강의시간표</b>																					
<b>영어회화</b>	시간 : 오전반 07:45~08:45 (월~목) 레벨 :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 150,000원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b>영어 레벨업</b>	시간 : 오후반 18:00~19:30 (화) 레벨 : Ted Talk 수강료 : 90,000원	Easy Book Club	Academic Writing Workshop																		
<b>일본어</b>	시간 :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 초급1/ 초급2 / 중급1/ 중급2 / 고급 수강료 : 150,000원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b>중국어</b>	시간 :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 초급1/ 초급2 / 초급3 / 중급1 / 고급1/ 고급2 수강료 : 150,000원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수) 오후반 18:00~20:00 (화, 수) 오후반 18:00~20:00 (화, 수)																		
<b>스페인어</b>	시간 : 오후반 18:00~19:30 (월) 레벨 : 초급1 수강료 : 120,000원	오후반 19:30~21:00 (화, 수)	오후반 18:00~19:30 (화, 수)																		
<b>프랑스어</b>	시간 :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 초급1 수강료 : 150,000원	초급1	중급1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a href="http://www.iie.ac.kr">http://www.iie.ac.kr</a>																					
<b>가. 접수기간</b>																					
■ 1차 : 6. 17.(월) ~ 6. 28. (금) ■ 2차 : 7. 8.(월) ~ 7. 19. (금)																					
<b>나. 강의기간</b>																					
■ 1차 : 7. 1. (월) ~ 7. 25. (목) / 4주간 ■ 2차 : 7. 22. (월) ~ 8. 14. (수) / 4주간																					
<b>다. 프로그램 일정</b>																					
<table border="1"> <thead> <tr> <th>1차</th><th>2차</th></tr> </thead> <tbody> <tr> <td>LEVEL TEST 6. 26. (수) 17:00</td><td>7. 17. (수) 17:00</td></tr> <tr> <td>입교식 7. 1. (월) 10:00</td><td>7. 22. (월) 10:00</td></tr> <tr> <td>Game Day 7. 11. (목)</td><td>8. 2. (금)</td></tr> <tr> <td>수료식 7. 25. (목) 13:00</td><td>8. 14. (수) 13:00</td></tr> <tr> <td colspan="2">모집인원 한 반 정원 15명</td></tr> <tr> <td colspan="2">강의대상 LEAP LEAP Advanced</td></tr> <tr> <td colspan="2">수강료 Half-Day Course (오전+오후) : 330,000원 (교재비 포함) Full-Day Course (오전+오후) : 595,000원 (교재비 포함)</td></tr> </tbody> </table>						1차	2차	LEVEL TEST 6. 26. (수) 17:00	7. 17. (수) 17:00	입교식 7. 1. (월) 10:00	7. 22. (월) 10:00	Game Day 7. 11. (목)	8. 2. (금)	수료식 7. 25. (목) 13:00	8. 14. (수) 13:00	모집인원 한 반 정원 15명		강의대상 LEAP LEAP Advanced		수강료 Half-Day Course (오전+오후) : 330,000원 (교재비 포함) Full-Day Course (오전+오후) : 595,000원 (교재비 포함)	
1차	2차																				
LEVEL TEST 6. 26. (수) 17:00	7. 17. (수) 17:00																				
입교식 7. 1. (월) 10:00	7. 22. (월) 10:00																				
Game Day 7. 11. (목)	8. 2. (금)																				
수료식 7. 25. (목) 13:00	8. 14. (수) 13:00																				
모집인원 한 반 정원 15명																					
강의대상 LEAP LEAP Advanced																					
수강료 Half-Day Course (오전+오후) : 330,000원 (교재비 포함) Full-Day Course (오전+오후) : 595,000원 (교재비 포함)																					
※ 1,2차 연속 수강 시 : 국제교육원 외국어강좌 장학 혜택 부여																					
<b>라. 강의시간표</b>																					
<table border="1"> <thead> <tr> <th>LEAP</th><th>LEAP Advanced</th></tr> </thead> <tbody> <tr> <td>10:00 ~ 11:20 11:30 ~ 12:50 14:00 ~ 15:20 15:30 ~ 16:50</td><td>6. 26. (수) 17:00 7. 1. (월) 10:00 7. 11. (목) 7. 25. (목) 13:00</td></tr> <tr> <td colspan="2">※ 월 ~ 목(주4회) / 1일 6시간</td></tr> </tbody> </table>						LEAP	LEAP Advanced	10:00 ~ 11:20 11:30 ~ 12:50 14:00 ~ 15:20 15:30 ~ 16:50	6. 26. (수) 17:00 7. 1. (월) 10:00 7. 11. (목) 7. 25. (목) 13:00	※ 월 ~ 목(주4회) / 1일 6시간											
LEAP	LEAP Advanced																				
10:00 ~ 11:20 11:30 ~ 12:50 14:00 ~ 15:20 15:30 ~ 16:50	6. 26. (수) 17:00 7. 1. (월) 10:00 7. 11. (목) 7. 25. (목) 13:00																				
※ 월 ~ 목(주4회) / 1일 6시간																					
※ 일정 및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b>라. 특전</b>																					
■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영문 수료증 수여 ■ Full-Day Course 수강 시, 성적, 출석 80% 이상일 경우, 영어1/대학영어 면제 (서울캠퍼스 학생에만 해당)																					



## 경희인 - 아침을 여는 사람들 ②

## “조금 느려도 괜찮아”, 커피와 함께 희망을 내리다

커피 장애인 근로자 김동현, 이현석 씨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 우리학교에는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 아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그들의 땀방울은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룬다. 우리신문은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교정을 거닐면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그들의 목소리, 그 속에는 각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마주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직원의 안내와 함께 커피가 나온다. 아침 수업 10분 전, 학생들은 학내 카페 'KHUFFEE(커피)'의 커피로 밀려오는 졸음을 쫓는다. 밤늦게 잠든 어제의 나를 탓해보지만, 새 하루는 찾아왔다. 작은 후회들이 교실에 모여, 어느새 아침 수업은 구수한 커피 향기로 가득해진다.

커피는 오전 8시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예술디자인대학(예대) 매장에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은 김동현 씨의 몫이다. 손님이 많아지는 11시가 되면, 이현석 씨가 와서 부족한 일손을 돋는다. 아침마다 커피와 함께 희망을 내리고 있는 그들을 만나봤다.

그들의 이름 뒤에는 '지적 장애인 3급'이라는 고리표가 붙어 다닌다. 사회는 그들의 이름이 아닌 고리표를 불렀다. '지적 장애인'이란 낱말에 담긴 편견은 이들의 일생을 옮아매왔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석 씨는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 그가 다니던 학교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붙어 있는 구조였다. 일반 학생들은 특수학급을 넘나들면서 현석 씨를 괴롭혔다. “맞는 것은 일상이었고, 화내면 경찰에 넘기겠다는 이상한 협박도 들어봤어요.”

장애는 현석 씨가 자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내려와 보니, 사람들은 현석 씨를 그렇게 지칭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학교부터 벗어나야했다. 현석 씨가 직업을 일찍 찾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때부터였다.

다른 학생들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현석 씨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을 첫 번째 직업으로 삼았다. 단순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는 보람 있는 일이었다. 특히 같



김동현(왼쪽) 씨와 이현석(오른쪽) 씨는 예술디자인대학에서 미소와 함께 손님을 대한다.

합격 소식을 듣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라면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은 날에 입사했던 동기와 함께한 추억은 현석 씨에게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까지는 같은 학교 친구들만 있었는데, 사회에서 다른 학교 친구를 사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2014년 가을, 커피가 첫 영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현석 씨는 커피에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소개를 받았다. 평소 현석 씨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서울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의 제안이었다. 우체국에서 함께 한 동료가 눈에 밟혔지만, 현석 씨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기로 결정했다. 훗날 이루고 싶었던 '나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다.

현석 씨에겐 커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간절했다. 면접 당일, 현석 씨는 여느 일반인 면접자와 마찬가지로 양복을 빼입고 면접장으로 나섰다. “면접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현석 씨는 면접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연습대로 잘 해냈다. ‘나만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도 그 자리에서 조심스레 꺼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석 씨는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다.

현석 씨와는 다르게, 동현 씨는 특수학교를 다녔다. 수업 커리큘럼은 자율적이었다. 동현 씨에게 학창 시절은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에버랜드에 놀러 가서 친구들과 놀이기구 타고, 낭만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본 일은 아직도 기억나요.” 동현 씨는 기분이 윤적해질 때면 그때 일을 가끔 떠올려보곤 한다.

특수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다. “학교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라떼, 아이스 라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고등학생 3학년이 되고, 동현 씨는 마침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냈다.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눴다. “합격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엄청 좋아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라면서 친척, 주변 사람들까지 다 소문내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다. 직접 제품을 팔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알아봤다. 그러다 서울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커피 장애인 근로자를 인터뷰한 영상을 접했다. 영상 속에 있는 현석 씨가 있었다.

동현 씨는 영상 속 인물이 대단해 보였다.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현 씨를 더 놀라게 했다. “영상을 보면서 저도 커피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동현 씨는 그때 영상에서 봤던 현석 씨와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출발선은 달랐지만, 그 인연은 일을 함께하기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등학교 3학년, 동현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무의 벽은 높았다. 사람들과 마주하고 직접 주문을 받는 일은 처음이었다. “딸기랑 블루베리 스무디를 시켰는데, 딸기랑 망고 스무디로 잘못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동현 씨는 그때의 실수를 지금까지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동현 씨는 월급 일부를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린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나머지는 가족의 빚을 갚는데 사용된다. 가족이 무너진다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되버릴 것만 같았다. 자격증을 땄을 때 가장 기뻐해준 사람도,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마다 고민을 들어준 사람도 가족이었다. 가족은 동현 씨의 초심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커피의 시작부터 함께 해온 현석 씨와, 이듬해 인터뷰 영상을 보고 합류한 동현 씨는 어느덧 회사에서 베테랑 직원으로 손꼽힌다.

그들이 같은 매장에서 함께 근무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베테랑답게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 맡은 역할에 몰입한다. “아이스 음료는 아까다 팔려서, 이제 주문이 안 돼요.” 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들 덕분에 예대 매장의 일은 마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끝나고 만다.

이곳의 영업 비밀은 단골손님을 대하는 방법에 있었다. 손님의 얼굴을 기억해두고 어떤 음료를 시킬지 예상해본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지, 주문이 날마다 바뀌는 손님을 만나면 “오늘은 뭘 드실까요?”라는 고민에 빠져본다. 주문에 특이한 조건을 다는 손님에게는 선수를 친다. “휘핑크림 좋아하시죠? 많이 넣어드릴게요.” 단골손님에 대한 그들 나름의 예정 표현이다.

지금껏 사회는 '지적 장애'라는 낱말 자체에 주목했다. 이는 개인이 가진 가능성마저 속박하는 틀이 되고 말았다. '지적 장애인 3급'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이 수반된다면, 이들은 각자 고유한 색깔을 뽐내며 다채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

“그동안 저를 잘 봐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동현 씨의 마지막 말에는 따뜻한 진심과, 그만의 짙은 색깔이 담겨 있었다.

## 2019-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안내 및 지급기준

장학명	모자이크장학	학업역량	유의사항	국제화역량	기타역량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 2018. 12. 01. ~ 2019. 06. 16. 기간 내 취득 실적(단, 2018-2학기 포인트 기인정부여 제외)</li> <li>신청가능 포인트 : 최소 100,000포인트부터 최대 2,000,000포인트까지</li> <li>포인트 합산 장학금 규모 : 100,000원부터 2,000,000원까지(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li> <li>포인트 환산기준 : 1포인트 1원</li> <li>교내·외 티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일부 생활비 장학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음</li> <li>※ 동일한 내역으로 타 장학 수혜시 모자이크장학 수혜불가</li> </ul> </li> <li>포인트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표에 의거하여 각 분야, 항목, 등급별로 취득한 실적으로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li> <li>-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인정(축학 중 취득 실적 불인정)</li> <li>-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 취득 실적만 포인트로 인정</li> <li>※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학점, 등급, 포인트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 단과대학에서 심사 후 등급 확정</li> <li>단기전, 공동저술의 경우 포인트는 1/6로 계산(장학금은 백원 단위에서 절사)</li> <li>학기당 최대 1회만 인정</li> <li>취득(제제)일 : 수상실적은 상장에 기재된 날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학술지 등재일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인증 관리(vms.or.kr)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으로, 1일 최대 8시간 인정</li> <li>봉사활동 인정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 인정 봉사 활동</li> <li>- 교내·외 티장학 및 국가교육근로 등 장학생의 의무사항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li> <li>- 장학금 지원을 받는 봉사활동 및 기타 대가성 봉사활동</li> <li>- 학기당 한월증 2장 인정(장학에 5,000포인트)</li> </ul> </li> <li>사회봉사활동 확인서 : 본교 양식과 기관양식 중 선택 제출 가능, 확인서에는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을 득해야 함</li> <li>-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행하는 실적인증서 제출 가능</li> <li>봉사활동 인정 기간 : 2018. 12. 01. ~ 2019. 06. 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학점 : 토플, 텁스, G-TELP, 오피(OPICs), 토익스피킹, IELTS 등록 인정</li> <li>스페인어학점 : DELE, FLEX 등록 인정</li> <li>재학기간 중 동일한 외국어 성적 등급 학점 시 2회까지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학점은 한 학기 당 1회만 인정</li> <li>-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모국어(외국 거주지 언어) 관련 어학시험 성적 불인정</li> <li>- 외국어/한문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2018. 12. 01. ~ 2019. 06. 16. 기간내 취득한 성적증명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li> <li>IT, 한국사, 한국어 학점의 경우 재학기간 중 등급항상 시 2회까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학점은 한 학기당 1회만 인정</li> <li>- 자격증 인정 기준 : 2018. 12. 01. ~ 2019. 06. 16. 내에 취득한 자격증</li> </ul> </li> </ul>
장학금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격 : 정규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의학 학계별 15학점)</li> <li>신청기간 : 2019. 06. 17.(월) ~ 2019. 07. 14.(일) 24:00</li> <li>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2019-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 개인역량 조회 → 신청버튼 클릭, 완료</li> <li>제출서류 : 온라인 대체,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 단과대학 행정실 요청 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인트 관리 : 학생은 본인의 실적을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역량관리에 등록한 후 증빙서류를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에서 해당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뉴 :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역량관리 → 개인역량 입력)</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인증 관리(vms.or.kr)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으로, 1일 최대 8시간 인정</li> <li>봉사활동 인정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 인정 봉사 활동</li> <li>- 교내·외 티장학 및 국가교육근로 등 장학생의 의무사항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li> <li>- 장학금 지원을 받는 봉사활동 및 기타 대가성 봉사활동</li> <li>- 학기당 한월증 2장 인정(장학에 5,000포인트)</li> </ul> </li> <li>사회봉사활동 확인서 : 본교 양식과 기관양식 중 선택 제출 가능, 확인서에는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을 득해야 함</li> <li>-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행하는 실적인증서 제출 가능</li> <li>봉사활동 인정 기간 : 2018. 12. 01. ~ 2019. 06. 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학점 : 토플, 텁스, G-TELP, 오피(OPICs), 토익스피킹, IELTS 등록 인정</li> <li>스페인어학점 : DELE, FLEX 등록 인정</li> <li>재학기간 중 동일한 외국어 성적 등급 학점 시 2회까지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학점은 한 학기 당 1회만 인정</li> <li>-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모국어(외국 거주지 언어) 관련 어학시험 성적 불인정</li> <li>- 외국어/한문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2018. 12. 01. ~ 2019. 06. 16. 내에 취득한 성적증명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li> <li>IT, 한국사, 한국어 학점의 경우 재학기간 중 등급항상 시 2회까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학점은 한 학기당 1회만 인정</li> <li>- 자격증 인정 기준 : 2018. 12. 01. ~ 2019. 06. 16. 내에 취득한 자격증</li> </ul> </li> </ul>	
포인트 인정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과대학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포인트 인정 처리</li> <li>학생지원센터 : 포인트 내역 검토 및 장학금 지급</li> </ul>				
장학금 지급	· 지급일 : 2019. 08. 16.(금)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